

2020년 5월 14일
후쿠오카 현

긴급사태선언 해제에 따른 당부 말씀

- 4월 7일 긴급사태선언 이후, 감염 확산 방지를 피하고 의료 제공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외출 자제와 휴업 등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렸으나 현민 여러분, 사업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 덕분에 긴급사태선언 해제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신 의료 종사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여러 현장에서 이 사회를 지탱하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선언은 해제되었으나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 사태를 직시하고, 사회·경제 활동의 회복과 원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 코로나 제 2막이 시작된 홋카이도와 타국의 사례가 있는만큼, 현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의식과 행동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다지고, 자신과 가족, 주위 사람들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 현재까지의 외출 자제와 휴업 요청 등에 대해서는 5월 15일부터 점차 완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현민, 사업자 여러분께 아래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외출 자제

- '타인과의 접촉을 80% 경감'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갈 것
특히,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 '3 밀'이 존재하는 장소에 가지 말 것
- 긴급사태조치 대상이 된 도도부현을 비롯하여 현을 넘나드는 불필요한 귀성, 여행을 자제할 것

(2) 새로운 생활양식의 실천

감염 확산 방지의 3가지 기본인 (1)신체적 거리 확보, (2)마스크 착용, (3)손 씻기 등, 감염을 예방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실천을 피할 것

※ 「새로운 생활양식」이란, '3 밀'을 피하고, 손 씻기·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타인과의 거리 확보, '외출은 소수로, 한가한 시간에', '식사는 마주 보지 않고 옆에 앉아서' 등,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 가까운 거리에서의 대화 방지 대책을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는 생활양식

「새로운 생활양식」을 실천합시다

- ◇ 손 씻기 ·소독
- ◇ 마스크 착용
- ◇ 기침 예절
- ◇ 3 밀 방지
- ◇ 타인과의 거리 확보

[식 사]

- 마주 보지 않고 옆에 앉아서
- 테이크아웃, 배달 이용
- 공용 접시 사용 및 술잔 돌리기 금지

[쇼 핑]

- 소수로, 한가한 시간대에
- 전자 결제 이용
- 계산대에서는 앞뒤 간격 유지

[근무 · 출근]

- 자택 근무, 시차출근
- 온라인 회의
- 도보나 자전거로 출근

[여가 · 스포츠]

- 공원은 한가한 시간대에
- 조깅은 소수로
- 운동은 홈트레이닝

(3) 행사(이벤트 등)의 개최

행사(이벤트)의 개최에 앞서 적절한 감염 방지 대책을 세울 것

전국적, 대규모 행사 등은 위험 방지 대책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중지 및 연기 등으로 신중히 대응할 것

※ 적절한 감염 방지 대책

입장객 수의 제한과 유도, 손 소독제 구비,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실시

(4) 시설 휴업 등

(1) 국내에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은 5 월 15 일~31 일 동안 휴업에 대한 협조 요청

※ 국내에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의 접객을 동반한 음식점, 바, 노래방, 라이브하우스, 헬스장, 스포츠 교실

(2) 상기 이외의 음식점을 비롯한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시, '사방이 오픈된 자리 배치', '회전율에 따른 적절한 소독과 청소' 등, 시설 유형 별로 제시된 적절한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실시할 것

※ 음식점 영업시간 등의 단축 요청 해제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휴관 요청 해제

※ 현립 학교는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5 월 18 일 이후 분산 등교 개시, 5 월 25 일 이후 순차적으로 전면 개교

(5) 직장 출근 등

자택 근무, 교대 출근, 시차출근, 자전거 통근 등 타인과의 접촉을 줄일 것

(6) 의료 기관과의 상담

- 아래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와 상담할 것
 - 호흡곤란, 권태감, 고열 등의 증상 중 하나라도 있을 경우
 - 병이 중증화되기 쉬운 사람 중 발열과 기침 등의 비교적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나 임산부
 - 상기 외의 사람 중 발열과 기침 등 비교적 가벼운 감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증상이 4 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할 것)

- 발열과 기침 등의 감기 증상으로 자주 가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시에는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상담할 것

【감염 재확산 시의 대응】

이번에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었지만 앞으로도 감염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감염 상황 등을 확실히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재차 감염 확산 대국면에 이르렀을 때,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료 관계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병상의 준비 등,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민을 대상으로 한 외출 자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휴업 요청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의료 제공 체제 확보의 준비를 위한 지표】

- 이하 ①~④의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
- ① 1 일 감염자 수가 3 일 연속 8 명(3 일 이동 평균) 이상으로, 증가 경향을 보임
 - ② 최근 3 일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날이 있음
 - ③ 병상 가동률이 50% 이상임
 - ④ 중증 병상 가동률이 50% 이상임

코로나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현민, 사업자 여러분의 의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한명 한명의 행동에 따라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현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당부드린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